■ 2010세계대백제전 18일 개막

700년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1400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한다. 오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백제 고도인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리는 '2010세계대백제전'은 백제 부활을 알리는 무대다.

'패망의 국가'로만 기억되고 있는 백제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치며 중국 등으로부터 문물을 받아 들인 뒤 이를 다시 재창조해 신라와 가야, 왜에까지 전파했던 교류 및 문화 강국. 백제금동대향로와 무령왕릉, 칠지도(七支刀) 등이 이를 묵묵히 웅변한다.

'세계대백제전(世界大百濟典)'이라는 명칭에는 고대 동북아의 '큰 나라'였던 백제의 700년 역사를 서사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선보임으로써, 단지 지역축제가 아닌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1955년 시작된 56년 역사의 백제문화제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국내 첫 장기 수상공연 등 초대형 이벤트와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체험 행사, 학술회의 등 모두 150개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의 기상과 혼을 일깨우게 된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사상 최대, 최고의 프로그램을 집대성해 역사·문화 축제의 신기원을 열게 될 전망이다.

제54회 백제문화제의 백제 기마군단 행렬. 이번 대백제전에는 120여기의 말이 동원돼 웅장한 스케일의 기마군단 퍼레이드를 재현하게 된다.

'글로벌 백제'의 역사문화 대향연

◇**행사장은 백제와 금강이 어우러진 '올레길'**=대백제전은 14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레길'이다. 느리게 걸으며 역사·문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만날 수 있다. 행사장은 공주와 부여가 각각 5개로 총 면적은 89만㎡에 달한다. 하루 코스도 좋지만 1박2일 일정이라면 좀 더 여유롭게 백제의 진수를 만끽할 있다.

공주는 금강 둔치의 주행사장인 고마나루 예술마당과 수상공연장, 공산성, 무령왕릉, 금강 둔치의 체육공원 행사장에서 모두 9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강을 중심으로 펴져 있는 각 행사장을 느긋하게 순회하며 공연 등을 즐기고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부여는 10여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백제문화단지가 압권이다. 이 곳은 백제시대의 왕궁과 사찰, 백제 마을 등이 재현돼 있고 이번 대백제전의 주행사장으로도 쓰인다. 부여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인 백마강변의 수상공연장과 구드래광장, 굿뜨래전시체험장, 궁남로 행사장 등에서 100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사상 최대, 최고의 역사·문화 축제**=대백제전의 백미는 수상공연이다. 공주에서 펼쳐지는 '사마이야기'와 부여에서 선보이는 '사비미르'는 국내 최초의 수상공연으로서, 수상공연 사상 가장 웅장한 규모로 최장 기간 공연된다. 연극, 무용,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이 결합된 수상 공연에는 각각 200여명의 배우들이 참여한다.

황산벌 전투 재현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투 재현이다. 논산 둔치에서 100분간 스펙터클한 전투씬이 펼쳐진다. 2008년에 국내 축제 사상 처음 선보인 백제 기마군단 행렬도 압권이다. 이번 대백제전에선 말 123필이 동원돼 최대 규모의 기마군단 행렬을 선사하게 된다.

각종 퍼레이드도 관람객을 압도하게 될 전망이다. 대백제전 기간에 오후 8시~9시30분까지 총 8차례 진행되는 퍼레이드-교류왕국 대백제전은 150명의 전문 연기자가 참여해 야간 퍼레이드로서는 가장 웅장한 총 2.5km의 퍼레이드를 펼치며 일대 장관을 연출하게 된다.

또 공주시 일원에서 총 3회에 걸쳐 전개되는 웅진성 퍼레이드도 1회당 총 5000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공주의 '웅진성의 하루'와 부여의 '사비궁의 하루'에 참여함으로써 역사문화 체험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프로그램은 고대 백제의 성과 궁을 재현, 옛 백제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오악사 연주와 최초의 한류스타인 '미마지'의 삶과 예술을 마당극 형식으로 극화한 창작극 미마지는 백제의 혼을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 재현극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古都 공주·부여 일원서 내달 17일까지
수상공연·학술회의 등 150여프로그램

대백제전 개막에 맞춰 17일부터 개장하는 부여 백제문화단지 전경. 154만㎡의 부지에 '사비궁'과 '위례성', 백제시대의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들이 조성돼 있다.

◇**대백제전 두 배로 즐기기**=공주와 부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서 깊은 문화재와 설화를 만날 수 있다.

공주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꼭 둘러봐야 할 코스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은 총 108종 2906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 유물은 인근 공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백제식 산성인 공산성에선 금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수문병 근무교대식과 백제 등불 향연 등의 볼거리가 제공된다.

부여에선 백제문화단지와 백마강, 궁남지, 정림사지, 서동요 테마파크 등이 놓치기 아까운 코스. 17일부터 개장되는 백제문화단지는 마치 백제시대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과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삼천궁녀의 한이 서린 부소산성과 백마강의 낙화암을 들러보며 황포돛배 체험도 할 수 있다. 정림사지 5층석탑으로 유명한 정림사지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인 궁남지, 서동요 테마파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대백제전 입장권(어른 1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을 구입하면 충남지역 주요 관광지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행사 기간 중 입장권 소지자에게 부여 백제왕릉원, 부소산성, 서동요테마파크, 정림사지박물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주에선 무령왕릉과 석장리박물관이 무료이며 공주 민속극박물관, 동학사 등는 50% 할인된다. 또 충남지역의 주요 박물관과 관광지도 무료 또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이용 기자 yong6213@daejonilbo.com

"국격 높이는 역사문화축제 만들겠다"

안희정 충남지사

"고대 동북아의 교류 및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의 700년 역사를 '2010세계대백제전'에 모두 담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백제전을 앞두고 "이번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일회성 지역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백제전이 종전의 백제문화제와 다른 점은.

▲56년 역사의 백제문화제의 정점이다. 700년 백제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집대성했다. 고대 백제가 동북아의 중심국가였던 것처럼 국제적인 역사·문화 축제를 통해 대백제전의 부활을 알리는 장이다.

-대백제전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그동안 우리 돌보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되찾는 축제다. 이 땅의 역사로 제대로 평가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어가야 한다. 보잘 것 없는 패망의 역사, 못난 조상의 역사라는 부정적 역사관으로부터 벗어나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이기 위한 행사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수상공연이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공주의 '사마이야기'와 부여의 '사비미르'는 수상무대 건립에만 총 120억원이 투입됐고 국내 최정상의 연출진과 전문배우가 백제의 설화를 바탕으로 백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황산벌 전투 재현과 백제 기마군단 행렬, 국제학술회의 등 총 150개의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백제의 기상과 혼이 녹아 있다"

-손님맞이 준비는.

▲교통과 숙박, 음식,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여간 모든 정성을 쏟았다. 특히 롯데부여리조트가 33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개관했고 공주에도 대규모 한옥숙박촌이 조성되는 등 숙박 여건도 크게 좋아졌다. 백제의 왕궁과 사찰, 마을 등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도 이번 행사에 맞춰 개장에 들어간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추억,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